

인터뷰 이제민 군

한자능력 1급 시험 합격

이제민 군 고입·대입 검정고시도 합격

올해 나이 14세의 이제민 군이 한자능력 1급, 고입 검정고시, 대입검정고시 합격해 화제가 되고 있다.

네 살 때부터 한자공부를 시작한 이 군은 초등학교 2학년때 포천으로 이사와 살다가 초등학교 6학년때 포천에서 유일하게 한학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백림 이병찬 선생을 만나 본격적인 한자공부를 시작했다고 한다.

이 군은 어른들도 합격하기 어려운 (사)한국어문회가 주최한 제36회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에서 1급에 합격하여 교육인적자원부 공인 민간자격증을 취득하게 된 것이다.

이 군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4월에 고입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지난 8월에는 대입검정고시에 합격하고 요즘에는 대입 수능시험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한다.

법조인이 꿈이라고 밝히는 이 군이 검정고시를 치르게 된 것은 중·고등학교 6년을 다 채우면 제 시간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생활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 군은 특히 국사에 관심이 많아 조선왕조실록 등 역사책을 즐겨 읽고 있으며 현재는 포천향교(전교 정기용) 서예교실(대표 이병찬)에서 한자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합에서 1급에 합격하여 교육인적자원부 공인 민간자격증을 취득하게 된 것이다.

이 군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4월에 고입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지난 8월에는 대입검정고시에 합격하고 요즘에는 대입 수능시험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한다.

법조인이 꿈이라고 밝히는 이 군이 검정고시를 치르게 된 것은 중·고등학교 6년을 다 채우면 제 시간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생활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 군은 특히 국사에 관심이 많아 조선왕조실록 등 역사책을 즐겨 읽고 있으며 현재는 포천향교(전교 정기용) 서예교실(대표 이병찬)에서 한자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용경자의 세상읽기 16

금 초

하나의 나무가 뿌리를 내려 수많은 가지가 생겨났고 오랜 세월 속에 고목이 되어버린 나무는 말없이 무수한 가지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있었다. 하지만 잔가지들은 미풍에도 재잘거리며 흔들리고 있었다.

견우직녀가 만나는 칠월 칠석에 함안이씨 자손들은 이른 새벽부터 조상의 묘에 무성한 풀을 베기 위해 가평 종가 집에 모였다. 3팀으로 나뉘어 예초기를 메고 산길을 올라 시작 된 것이 점심때가 넘어서 모두 끝났고 잦은 소나비도 그때를 피해 주니 조상님께 감사하고 금초날짜를 잘 잡았다고 입을 모아 서로 칭찬하였다. 남자들이 무장을 하고 산으로 올라가자 여자들과 아이들은 모여 앉아 한 잔의 차를 마시며 잠시 그동안의 안부와 살아가는 이야기를 풀어 놓았다.

이어서 점심 준비를 위해 가마솥에 콩나물밥을 하기로 하고 불을 지피려 하니 장마에 젖은 땀나무가 불이 붙지 않아서 계속 신문지를 넣고 부채질을 해왔다. 하지만 물과 불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서 콩나물밥이 밤과 죽사이의 모양이 되었으니 이를 어찌라! 불 때느라 고생한 보람도 없이 점심 준비를 위해 애쓰신 큰형님의 속상한 마음이야 오죽했을까?

할 수 없이 점심상을 차려 맛있게 먹고 있는데 철부지 조카가 개밥 같다고 하는 바람에 30명 넘는 친인척들이 박장대소를 하였다. 식사가 끝나고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앉아 돌아가신 큰아버님의 이야기와 백일을 맞은 작은집 조카의 재물을 보여 조상님 묘를 돌보았다는 뿌듯함에 행복한 모습이였다.

요즘은 문화가 간소화되어 금초도 사람들 사서하고 점심은 식당에서 먹고 각자 금초를 따로 하자고 하니 당장에 편한 것만 찾아 화합하지 못한다면 뿌리 깊은 고목의 마음이 어떨까?

앞으로 묘문화가 가족모로 변해가는 시대라지만 천만년 묵묵히 공경되어지고 있는 고목나무의 생명을 잔가지들도 한번쯤 돌아보고 조금씩 힘을 모아 화합하는 모습이 금초에 직접 돌아보는 모습이야말로 짐승하고 다른 우리 인간의 모습이요 계속 뻗어나가는 한 고목나무의 정겨운 모습이 아닐런지...



김형석 조서위원/영무

추천! 이야기 한마당 그대 삶의 주치의는 그대 자신입니다



이문용 분지자문위원

그대 몸의 주치는 의사이야 하지만 그대 삶의 주치는 그대 자신이어야 합니다.

몸에 병이 나면 의사가 치료해주지만 삶에 탈이 나면 자신이 치료해야 합니다.

몸에 난 병이 급하면 응급실로 가면 되지만 삶에 난 탈이 심하면 침착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왕자왕하면 정신만 산만해지고 해결 방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몸에 병이 아무리 커도 찾고 싶으면 시술 방법이 나오듯, 삶이 아무리 큰 위기에 접했다더라도 차분하게 탈출구를 찾으면 벗어날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위기에 처했다라도 그대를 살리는 사람이 되세요. 위기는 죽으라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숨겨져 있는 자기를 살리는 방법을 찾으라고 오는 것입니다.

위기가 오면 침착하게 자기를 살리는 방법을 찾는 사람이 그대가 되길 바랍니다.

-좋은글 중에서-  
(문의 011-342-5834)

관인의용소방대 한탄강 청소실시

6km 구간 휴가철 버려진 쓰레기 수거

관인의용소방대(대장 안운빈)는 9월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병정2리 군탄교에서 사정리 모래내 유원지까지 약 6km 구간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한탄강 대청결운동을 실시했다.

이날 쓰레기 수거는 국토대청결운동의 일환으로 휴가철 기간 중에 행락객들에 의하여 버려져 방치되었던 쓰레기들과 상류지역에서 떠내려 온 건축물 폐기물 등이 강변 주변에 널려있어 한탄강을 찾는 관광객들의 시각 및 후각을 찌푸리게 할 뿐만 아니라 포천시민의 상수도

보호구역 이기도하여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

특별히 행사를 위하여 문암레저(대표 이종명)에서 래프팅 보트 3대를 협찬했고 관인면(면장 이문근)에서도 쓰레기 수거용 마대를 지원해 한탄강 대청결 운동을 훌륭히 마칠 수 있었다.

안운빈 대장은 "지속적인 대책으로 포천시에 건의하여 맑고 깨끗한 한탄강을 지키기 위해 예산편성 및 포천시와 철원군과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여 자연보호에 시·도를 초월하여 아름다운 강산을 후



관인의용소방대는 9월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병정리 군탄교에서 사정리 모래내 유원지까지 약 6km 구간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한탄강 대청결운동을 실시했다.

손에까지 대물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관인의용소방대원들이 한탄강 지키기로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승안 기자 forme65@paran.com

자유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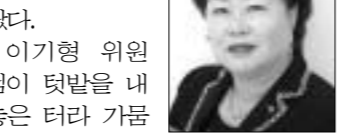
봉숭아 꽃물 들이기 행사

포천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박영근)는 8월16일 오전10시부터 12시까지 관내 6개 유아원을 상대로 천사들의 손에 예쁘게 봉숭아 물을 들여 주었다.

간간히 이슬비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309명의 아이들이 참여했다. 한해 어린이집 38명, 포천 어린이집 56명, 연세 어린이집 35명, 아기 어

린이집 38명, 반월 어린이집 40명, 아람 유치원 120명 등 모두들 즐거운 하루, 지성스럽게 감사 메워 주는 5개 단체 33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질서 있게 이루어졌다.

이른봄부터 주민자치위원들은 모종을 심고 풀제거 작업을 통해 정성스레 가꾸어오던 꽃마저도 활짝 예쁘게 피어 색깔도 너무 고



박혜자 주부봉사자대장

왔다.

이기형 위원님이 텃밭을 내놓은 터라 가물에도 물주기도 좋았고 우선 가까운데 있어서 가꾸어가는데도 수월했다.

자치위원 8명, 동직원 8명, 부녀회 8명, 소방대 3명, 바르게살기 6명이 참여해서 한번에 수십명이 손가락을 내밀어도 매년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적절하다.

천연재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행사에 어린이들은 함박웃음을 감추지 않고 서로 자랑이다. 하나씩 나누어주는 사랑 맛을 기다림은 지루함을 달래는 달콤함의 향료, 벌써 내년의 행사가 기다려진다.

추억 속으로 오랜 시간 간직할 수 있는 꿈을 심어주고 포천동 동장님과 함께 한 자원봉사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인의窓

나무와 바람

조 미 경(포천문인협회 회원)

푸른 웃고 있는 나를  
놀리며 건드리더니

구름 사이로 펼쳐나온 날 넓은 햇빛만이  
산비탈에 주소를 둔 대머리 바위인가  
아님,  
스킨 냄새 풍기는 부지런한 바다인가

안개 같은 웃음으로  
하늘거리는 웃자락 흘러더니  
누구와 춤을 추나  
변심한 여편네

<감상노트>

보통 바람은 흐르거나 지나가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바람만큼 사람의 가슴에 오래 머무는 것도 더러는 없다. 그만큼 바람의 속성은 잔인한 부드러움과 무색이지만 색깔 짙은 향기다.

바람은 흔적을 남기기 이전에 기억을 먼저 데리고 온다. '불바람', 그 얼마나 설레는 실결인가! '밤바

람', 이 또한 살 익는 속삭임이다. '가을바람' 꽃의 아픔을 정말인지 편지로 쓰지 않는가. 그렇다. 바람난 시간만큼 고소한 맛이 어디 있으며 사람의 삶을 도려내는 고통이 또 있을까. 바람은 가장 추상적 이데이션 줄 알지만 가장 현실적인 삶의 기력이다.

안 익 수(시인)

이제는 한우도 품질을 비교하세요

암소한마리·생고기 전문점 명품관(구. 용궁마당) 탄생

고기맛을 보시고 평가하세요. 최고급 한우고기(암소)만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주메뉴

- 한우 특수부위
- 한우 갈비살
- 한우 버섯불고기
- 곰탕·우거지탕
- 한우 등심
- 한우 육사시미
- 돈왕갈비
- 냉면
- 한우 생고기 모듬
- 한우 육회
- 생삼겹살
- 육회 비빔밥

■ 포천시 신북면 고일리 10-5 ■ 예약문의 : 031)531-8080 H.P : 011-417-5051